

장백산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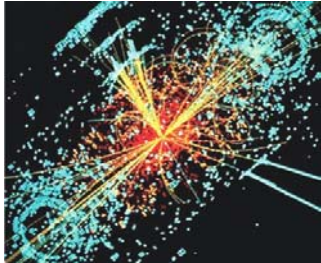
제 52 호

2007 년 9 월 28 일

금요일

과학탐구 <제 5 도공간>에 대하여

미국 하버드대학 물리학교수 리싸-란달은 한차례 핵분열변화실험을 할때 생각밖에 미립자가 갑자기 소실되는 현상을 발견했다. 미립자가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인류가 볼수 없는 <제 5 도(第五度)



공간>으로 날아갔을 것이라고 그는 추측했다.

최근 몇십년동안 물리학계에서는 4 위(四維)공간을 초월한 다른 5 위공간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다. <암(暗)에너지>、<암물질>의 발견은 더욱 과학계를 놀라게 했으며 많은 과학자들은 여러 공간이 존재할뿐만 아니라 무수한 우주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서방실증(实证)과학이 연구하고 있는 이 문제는 중국의 고대문명에 대해 말한다면 무슨 비밀이 아니다. 자고로 수련계에서는 집적 다른 공간을 인식하고 있었다. 천목(天目)이 높게 열린 수련자들은 다른 공간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공간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사실 다른 공간은 어떤 때엔 우리앞에 나타날 수도 있다. <신기루>가 바로 다른 공간이 존재 하는 현상이 우리 공간에 반영되어 나타난 것 이고 신비로운 <버무다>는 바로 시공교차의 터널이다.

누구나 리홍지선생님의 저작 <전법륜>을 읽어본다면 당신은 우주、시공、생명에대해 새롭게 해석할 것이며 실증과학을 초월한 더욱 광활한 천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향촌소매점의 “하나사면 둘줍”

최근 친척집에 다녀오면서 재미있는 한가지 일을 들었다. 한 건설시공대가 하북의 한 농촌건설현장에서 시공하고 있었는데 한 공인이 소매점에 가 물건을 사고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말했다. 보세요! 하나를 사니 둘을 주었는데 모두 진짜 물건입니다! 사실은 가게 주인이 “구평공산당”과 다른 한 법륜공 진상자료를 주었던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소매점에 갔는데 그와 똑같았다. 사람들은 “구평”과 진상자료를 갖고 와 친구들과 나누었다. 현재 법륜공진상은 널리 퍼지고 있고 민심은 각성하고 있으며 중공이 연출한 “천안문 분신자살”의 사기극은 독해의 시장을 잃어버렸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하늘이 중공을 멸망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급급히 법륜공진상을 알리고 하고 있으며 공산당의 일체 조직에서 탈퇴하여 자신의 생명의 안정을 보장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진짜로 명지한 행동이다.

인간신화

대법은 나에게 새 생명을 주었다



금년에 53 세인 나는 임숙화(任淑华)라 부르며 1984 년 계획생육시기에 결찰수술을 잘못 받아 신경성반신불수가 되었다. 전국각지의 큰 병원에서 치료받았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 1991 년 1 월에 나는 대법을 수련하기 시작하여 낙달도 안되어 걸을수가 있었다. 이리하여 16 년동안의 반신불수생활을 끝맞치게 되었다.

만화감상 대전막후(台前幕后)



새소식 중공의 파룬궁탄압제지를 위한 인권성화가 파리에 전달되다

인권성화를 전세계에 전달하는 활동은 현지시간으로 9 월 16 일 오후 4 시반에 <인권조국> 인 프랑스 수도 파리에 전달 되었다.



민간전설

<불광>의 유래

2000 년전 동한 영평년에 사천 아미산의 하염정아래에 약재 캐는 한 포공(薄公)이라고 부르는 로인이 살고 있었다. 어느 하루 포공은 산에서 약재를 캐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선악(仙樂)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머리를 쳐들어 바라보니 한무리 사람들이 오색 길상 구름을 타고 아미산 금정(金頂)쪽으로 날라 갔다. 포공은 그 길상 구름을 따라 금정으로 내달렸다. 금정에 도착한 포공은 사신(舍身)바위 아래의 구름은 파도치고 천만갈래 광채를 뿌렸다. 그 천만갈래 광환속에 한 선인이 각별히 주목을 끌었다. 그는 머리에 금관을 쓰고 몸에 황금가사를 두르고 상아 6 개인 코끼리를 타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장엄하고 뛰어나(殊勝) 이루다 말할수 없었다. 포공은 그 선인이 누구인지 몰라 보장중한테로 부랴부랴 달려갔다. 포공은 보장중에게 그가 금방 금정에서 본것을 알려주었다. 보장중은 듣고나서 경탄해 말했다. <그것은 보현(普賢)보살이로다.> 그는 포공을 이끌고 금정으로 달려갔다. 그들은 사신바위위에서 내려다보니 망망한 운해속에 칠색보광이 있었다. 포장중은 말했다. <저 칠색보광은 보현보살의 화신인데 불광이라고도 부르웨다.> 포공은 정신을 가다듬어 바라보니 광환속에 나타난 보현보살의금신(金身)을 보았다. 전하는데 의하면 그때로부터 사람들은 신불의 머리위에 나타난 보광을 불광이라고 불렀고 길상의 상징으로 되었다.

전국각지에 나타난 일부분 불광



금년 8 월 14 일, 장백산에 나타난 불광



금년 7 월 1 일, 진황도시조산에 나타난 불광



금년 2 월 8 일, 신강나스에 나타난 불광



작년 11 월 18 일, 윤남아로고동에 나타난 불광

한자해석

왕(王)', '주(主)', '책(責)'

‘王’자는 필획이 아주 간단하지만 그 내포는 아주 깊다. 인간세상에서 한 나라의 군주를 일러 ‘국왕(國王)’이라 하고 천상에서는 천국의 주재자를 일러 ‘법왕(法王)’이라고 한다. ‘王’자의 구조를 보면 위아래로 ‘一’이 있고 중간에 ‘十’이 있다. 위의 ‘一’은 ‘하늘(天)’을 대표하고 아래의 ‘一’은 ‘땅(地)’을 대표하며 중간에 있는 ‘十’은 ‘시방(세계)’를 대표한다. 그렇다면 천지시방을 장악한 것이 바로 ‘王’이다. 다시 말해 ‘王’은 시방천지를 장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主’는 ‘王’위에 점이 하나 추가되어 어떤 의미에서 말한다면 ‘主’가 ‘王’보다 높다. 글자 구조로 보면 ‘主’는 ‘王’ 위에 있으며 무량(無量)한 법왕이 존재하는 층차에는 그 한 층차의 주가 있고 무량한 우주로 구성된 천체에는 방대한 천체의 주가 있다.

‘責(責)’자는 ‘主+且+人’의 3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차(且)’는 각기 다른 층차와 천체(天體)우주(宇宙)를 대표하며 ‘인(人)’은 가장 낮은 층차의 사람을 대표한다. 다시 말해 ‘人’과 각기 다른 우주천체 위에 있는 것이 바로 ‘主’이다. 글자의 전체적인 구조로부터 볼 때 우주의 주는 위에서 각기 다른 층차의 중생과 가장 낮은 층차의 사람을 관리하는데 이것이 바로 주의 ‘責(任)’이다. 이것이 바로 ‘責’이란 글자의 진정한 함의이다. 그렇다면 관리를 잘하면 곧 책임을 다한 것이고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이와 관련된 단어로는 ‘責任(책임)’, ‘負責(부책)’, ‘責無旁貸(책무방대 역주: 책임은 미룰 수 없다는 의미)’ 등이 있다.

신전문화

마음의 빚장은 문빚장보다 낫다

한 녀인이 일보러 외출했다. 시간이 몹시 늦어 마을이 보이지 않아 절간에 가서 하루밤 묵고 갈수 밖에 없었다. 방장(方丈)은 녀인을 모시고 한 객실로 들어서면서 <사주(施主)는 여기서 편안히 주무십시오.>하고 말했다. 녀인은 실내를 둘러보고 나서 얼굴이 빨개지며 <여기에 문빚장이 걸려있지 안군요.>하고 말했다. 방장은 합장하면서 의미심장하게 대답했다. <사주여, 출가인은 문빚장이 없어도 마음빚장은 있소이다. 마음빚장은 문빚장보다 훨씬 안전하우다.>

